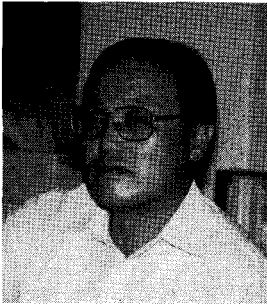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최 운 홍
농약공업협회 홍보부장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전통적 농업의 문제점은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전통농업기술에 의존하는 동안 식량부족으로 오랫동안 배고픈 시련을 겪어 왔다

얼마전 개최된 어떤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어느분이 「현장교육겸 제초작업 지원을 위해 초·중·고·대학생들 전원을 동원하고 전국 도시의 유희인력을 국민 총동원의 뜻으로 먼저 교육한 후에 전농토의 제초작업에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말해 「제초제는 무조건 나쁘다, 쓰지 말아야 한다, 잡초는 모든 국민과 학생들을 총 동원하면 된다」는 논리인 것 같다.

그러면 이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지금 가스, 전기, 수도, 자동차, 지하철, 컴퓨터, 냉난방, 의약 등 과학의 이기(利器)들을 이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자기자식과 손자손녀들에게 뜨거운 피약별 아래서 풀을 뽑으라고 했을때 과연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첨단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유독 정밀화학산업의 총아인 농약에 대해서만 근거없는 편견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세계적인 농학자인 일본의 竹松 哲夫박사(宇都宮大學)는 「유기농업은 농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비만으로 농작물을 키우는 원시농업으로 학문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과학적인 체계도 없는 허상(虛像)의 농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또 근대농학이나 농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1800년경 세계인구 5억밖에 먹여 살리지 못했던 원시농업으로 54억 인류를 어떻게 지탱해 나가야할지를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인류역사를 통하여 인간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매일 먹을 것을 얻는 일이었으며 지금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실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전통적 농업의 문제점은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전통농업기술에 의존하는 동안 식량부족으로 오랫동안 배고픈 시련을 겪어 왔으며 더욱이 현대 첨단농업이 실현되고 있는 지금도 농업발전이 안된 국가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매일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1992년으로 이 정의에 따르면 「유기농업은 일체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생산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요즘의 농산물의 유통실태는 어떠한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상품화 가능한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데도 재배자 잘못된 지 유통업자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온통 유기농산물로 통념화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고품질농산물시대의 흐름을 거역하기가 어렵고 농약이나 비료를 안쓴 것이 쓴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 또는 화학농약은 무조건 해롭다는 저변에 깔린 잘못된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왜 이처럼 농작물 재배에 흑백논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일반 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을 누가 확인하고 판정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기농업을 생산비, 수량 등에 개의치 않고 종교철학적신념의 소규모 농법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대해서는 깊은 공감과 함께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다.

1991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는 스스로 유기농법을 하고 있다고 밝힌 500농가에 대해 왜

유기농업을 더 넓은 면적에서 실시하지 못하는가를 조사한적이 있다. 이 조사에서 유기농업 실천에 따르는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력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고, 유기농법을 따를 경우 작물의 수량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7%가 수량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유기농업을 실천한다고 밝힌 농가들 가운데 50%이상이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일뿐이지 전혀 쓰지 않는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소위 유기농업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같은 조사결과와는 달리 유기질비료와 효소제로 대체사용하면 작물의 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학의 발달속에 그 혜택을 향유하면서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례를 꺼집어 내어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이며 문명의 이기를 누릴 자격도 없다.

지금 우리는 농촌의 토양, 수질, 농산물의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말로 그 실태가 심각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솔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과학은 어디까지나 과학자에 의해 과학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명되어야지 추상적인 추측과 소문 그리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서 해결되어서는 안된다.

미꾸라지가 없어지고 새가 사라져가고 생태계에 어떤 변화만 보

이면 근거도 없이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지목을 받게 되고 후에는 이것이 사실로 잘못인용되어지는 사례가 있다면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가장 살기 편하도록 주위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든 생태계에 “아 옛날이여”를 원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한가지 예로 미꾸라지가 논주변 도랑에서 서식하기 위해서는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필요한데 환경개선 및 개수 때문에 온통 시멘트로 벽이 둘러싸여 있고 그 수로를 통해 연중 오수·폐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꾸라지가 그 옛날처럼 서식할 수 있겠는가?

농약이나 의약이나 똑같은 약으로서 하나는 작물을 보호하고 질 좋고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을 고치고 퇴치하기 위해 엄청난 개발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농업 우리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온국민이 매일 먹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 「안전」과 「유해」라는 흑백논리로 가름하는 사고방식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농약정보**